

2010. 10. 18 제249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동향

2010. 10. 18 제249호

산업 · 경제

1. '기업 경영정보센터'를 국립도서관에 설치 (런던)
2.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인터넷사이트 확대 운영 (베를린)

건강 · 복지

3. '성인 재교육의 날' 행사 개최 (베를린)

행정 · 재정

4. 지역업체에 관급공사 우선권 부여 (로스앤젤레스)

방재 · 안전

5. '안전한 공원'을 선정해 시상 (런던)

도시환경

6. 주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대책 추진 (런던)
7. '솔라아틀라스'를 이용해 도시의 태양열에너지 잠재성 분석 (베를린)
8. '친환경 운전' 경진대회 개최 (도쿄)

도시계획 · 주택

9. '가로공간 디자인 매뉴얼' 작성 (뉴욕)
 10.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도시계획 안내서 발간 (영국)
 11. 공공공간 개선 프로그램 '위대한 야외공간' 추진 (런던)
 12. 20년 장기발전계획 'Big City Plan' 수립 (영국 버밍엄市)
 13. 민간이 소유한 역사 건축물 보수공사 지원 (도쿄)
-

산 업 · 경 제

1. '기업 경영정보센터'를 국립도서관에 설치 (런던)

○ 런던개발청은 런던 소재 국립도서관에 '기업 경영정보센터'를 설치해 도서관측과 공동 운영함. 이 센터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기업가와 발명가, 영세 기업을 돕는 데 주력함. 이곳에서는 산업 및 지적 재산권 자료를 무료로 열람하고 창업 및 기업 운영 관련 전문가 상담, 세미나 개최, 일대일 맞춤 상담 등을 할 수 있음.

- 2006년 3월 문을 연 이후 세미나와 개인 맞춤형 상담건수가 2000회에 달하며 센터를 다녀간 기업 관계자는 10만 명을 넘어섬. 런던개발청이 센터 설치비용을 전담하였으며, 운영비는 국립도서관 측과 공동 부담함. 도서관 측은 센터 웹사이트(www.bl.uk/bipc)를 별도로 운영함.
- 열람 가능한 자료는 일반 창업 정보, 자금 확보, 시장 조사, 기업 현황, 기업계 소식, 특허·상표권 정보임. 센터 전문가가 주도하는 정기 강좌와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지적 재산권 관련 온라인 강좌도 꾸준히 열리고 있으며 강좌 자료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공개됨. 센터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용자와 소통하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무료로 열람증을 발급받으면 됨.

(www.lda.gov.uk/projects/british-library-business-and-ip-centre/index.aspx)

(www.bl.uk/bipc/)

2.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인터넷사이트 확대 운영 (베를린)

- 베를린市는 문화창조자와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www.creative-city-berlin.de)를 운영함. 市는 2007년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창조경제 사업체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지역환경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함.
 - 市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을 위해 유럽연합 문화혁신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운영주체도 문화사무국에서 경제기술여성국으로 바뀌어 더욱 적극적으로 미래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함. 市는 창조경제 발전의 주역을 문화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개인과 창조경제 사업체로 보고, 이들이 베를린으로 많이 모여들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 인터넷사이트의 주요 기능과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창조경제 주요 입지로서 베를린에 관한 정보: 문화 및 경제 지원책, 창업요건, 저작권, 아틀리에 소개, 세제, 담당부서 정보와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함.
 - 종합적인 데이터뱅크 기능: 문화와 창조경제 활동과 관련된 기관, 기업, 개인과 이벤트 등을 쉽게 찾아보도록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방대한 정보 링크를 제공함.
 - 예술가와 사업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장: 베를린에서 활동하거나 베를린으로 이주할 계획인 예술가와 사업체가 자신의 작품, 제품, 서비스, 경험과 능력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올려 소개하도록 함.
 - 커뮤니티 기능: 문화창조자, 기업 및 창조경제 관계자와 기관이 자신의 프로필을 올리고 다른 이들과 교류하도록 함.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이 실질적인 문화창조 활동공간에서 자신의 작품과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10/06/313404/index.html)

(www.creative-city-berlin.de/help/)

9·11 테러가 일어난 국제무역센터 부지에 아트센터 조성 (뉴욕)

- 미국 연방정부는 9·11 테러가 일어난 뉴욕시 국제무역센터 자리에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함. 또한 연방정부는 맨해튼의 인프라 재정비, 경제발전, 교통, 문화 프로그램 등에도 투자할 계획임. 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9·11 테러 이후 침체된 로어 맨해튼의 재생과 문화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

건 강 · 복 지

3. '성인 재교육의 날' 행사 개최 (베를린)

- 2010년 9월 24일 독일 전역에서는 '성인 재교육의 날' 행사가 개최됨. 올해로 3회째인 이 행사는 연방의회, 교육부, 노동청, 정치교육센터, 시민 재교육협회 등이 공동 주관하고 유명 영화배우, 스포츠 스타, 문화계 인사, TV 아나운서가 홍보와 자원봉사 활동에 나섬. 독일 전역에서 600여 개 이벤트에 약 10만 명이 참여함.
- 독일에서는 정규교육(유치원~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는 줄지 않고 있지만 성인 재교육에 대한 투자는 재정여건상 계속 줄어 다른 유럽연합 국가보다 뒤처졌고,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군에 대한 전문가도 부족한 상태임. 이에 따라 2007년 직업교육연합과 시민재교육협회 등이 '성인 재교육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연방정부도 이 행사에 적극 협조함. 2010년에는 재교육 강좌가 얼마나 많은지를 시민에게 알리는데 집중하기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관심을 끄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함.
- 베를린시는 85개 공·사립 재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이번 행사를 도시문화 행사로 꾸밈.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재교육 기관에서는 수천 개의 맛보기 코스, 지식 테스트, 학원 가이드 등의 행사를 개최함. 이날 행사에서는 인터넷사이트 '재교육 데이터뱅크' 홍보도 펼쳐짐. 이 인터넷사이트는 서비스 영역을 개인, 기업, 교육 제공자별로 나누고 재교육을 받기 원하는 쪽과 제공하는 쪽을 서로 연결시켜 줌.

- 개인서비스 영역에서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과 목표를 입력하면 필요한 재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이 제시되고 유망한 직업군 정보도 제공됨. 실습생을 원하는 회사 정보, 재교육 지원금 정보, 자격증 취득과정과 재교육강좌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제공됨.
- 기업서비스 영역에서는 직원에 대한 재교육 필요성과 분야를 입력하면 교육기관과 강좌가 제시되고 유망 분야, 직원 재교육 지원금에 대한 정보도 제공됨. 직원이 재교육을 받는 동안 실습생을 쓸 수 있도록 실습을 원하는 사람을 연결시켜 줌.
- 재교육제공자 서비스 영역에서는 공·사립 재교육기관이 강좌 정보를 올리도록 해 재교육을 원하는 개인이나 회사가 재교육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재교육시장 동향 정보도 제공하여 교육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함. 이밖에 개인 강사가 자신의 프로필과 전공분야를 올려 재교육을 원하는 쪽과 연결되도록 해주고 재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줌.

(www.wdb.de/de.aspx?seite=Allg/Home)

(www.berlin.de/special/jobs-und-ausbildung/weiterbildung-und-sprachkurse)

4. 지역업체에 관급공사 우선권 부여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시는 지역업체에 관급공사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임. 시는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면 약 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함. 시 관급공사는 발주액 기준으로 타 지역업체가 84%가량 수주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경제 성장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됨.

- 시는 지역업체에 8%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 중임. 예를 들어, 최저입찰제의 경우 지역업체가 100만 달러(약 11억 원)를 제시했어도 92만 달러(약 10억 원)로 간주하고, 사업성 평가에서 100점을 받았어도 108점으로 평가함.

- 지역업체가 우선권을 받기 위해서는 ① 로스앤젤레스에 업무용 빌딩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해 이용하고 있고, ② 상용 근로자 절반 이상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근무해야 하며, ③ 사업자로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된 업체여야 함. 대부분의 지역업체들은 로스앤젤레스가 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가격, 세금이 높아 타 지역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주장함.

(www.scpr.org/news/2010/09/09/la-considers-plan-favor-local-businesses-contract-/)

방 재 · 안 전

5. '안전한 공원'을 선정해 시상 (런던)

○ 런던시는 공원 내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을 줄인 자치구를 대상으로 '안전한 공원' 시상식을 개최함. 시 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27%가 지역공원 이용을 꺼리고 있는데 이는 물리적인 폭력과 강도, 야간조명 불량으로 인한 범죄공포 등 대부분 안전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시는 공원 내 반사회적 행동과 범죄 예방, 공원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인식 전환, 공원 이용 확대, 공원 치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행사를 마련함.

- 시는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을 할 수 있고 어린이 놀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어 공원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양질의 공원 3000여 개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힘. 시는 이를 위해 ① 공원 주변에 있는 덩불을 제거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② CCTV를 설치하며, ③ 야간 조명을 확대함.

·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벅슬리區의 단손 공원은 지역경찰과 주민치안팀, 자치구 치안지원팀이 공조하여 공원 내 반사회적 행동과 10대 음주행위를 줄임. 경찰은 야간에 공원 순찰을 강화하고 공원 주변에서 10대에게 술을 파는 상점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를 제한함.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결과 10대의 반사회적 행동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boris-launches-award-safer-parks-london)

도 시 환 경

6. 주택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대책 추진 (런던)

○ 런던市는 주택부문의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제시한 ‘에너지·기후변화 계획’을 최근 발표함. 주택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런던 전체 배출량의 1/3을 차지함. 市는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런던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도시, 새로운 녹색산업을 창출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함.

- 市는 이를 위해 ① 친환경 교통시설에 투자하고, ② 업무공간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며, ③ 탄소제로 지구를 10곳 지정하고, ④ 2025년까지 지역기반 에너지 공급량을 25% 늘리며, ⑤ 향후 3년간 1억 파운드(약 1778억 원)를 에너지·기후변화 프로그램에 투자하기로 함.

- 市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8000세대를 9개 지구에 조성함. 이들 주택에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전구, 난방기, 물 절약장치를 설치해 매달 80파운드(약 14만 원)의 비용을 절감함.

· 또한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까지 120만 세대를 방문할 계획임. 이 중 5만 5000세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市는 2015년까지 에너지 절약형 기기를 이들 주택에 설치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년 33만 6000톤 줄이고 지붕과 벽에 단열재를 설치하면 2015년까지 82만 톤을 줄일 것으로 예상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

7. '솔라아틀라스'를 이용해 도시의 태양열에너지 잠재성 분석 (베를린)

- 베를린市는 市 경제지원 협력사인 베를린 파트너社와 공동으로 '베를린 솔라아틀라스(Solaratlas)'를 제작함. 솔라아틀라스는 도시 전체 태양열 에너지의 잠재성을 표시한 지도임. 솔라아틀라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베를린에서 태양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건물 지붕은 약 50만 개임. 이곳에 태양열 집열판을 모두 설치할 경우 해마다 320만 MW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베를린 전체 전력소비량의 77%를 충당하는 양임.
 - 솔라아틀라스는 건물 지붕면 각도, 방향, 그늘, 평균 일조량 등의 데이터를 종합하고 태양열 집열판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지붕 평방미터당 태양열에너지 생산의 잠재력을 계산함. 인터넷상에서 베를린 3차원 도시 가상모델을 열어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 지점에 있는 건물지붕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는 게 적절한지, 얼마나 많은 전력이 생산될 수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음.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저감되는지도 알 수 있음.
 - 베를린에는 약 8000개의 건물지붕에 태양열 집열판이 설치되어 있음. 이는 대부분 관청과 학교 등 공공건물임. 솔라아틀라스를 활용하면 개인 소유 건물의 태양열에너지 잠재성도 파악할 수 있어 태양열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市 건강· 소비자· 환경국은 공공건물과 태양열에너지 기술산업 간 네트워크 사이트(www.soladachboerse.de)를 2011년부터 개인 건물까지 포함해 운영하기로 함. 건물주는 이 인터넷사이트에서

태양열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상담과 건물 분석 서비스를 받은 뒤 자신에게 맞는 시설이나 사업체를 선택해 태양열에너지 잠재성을 실제로 이용함.

-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해 환경친화적인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환경과 기후 보호에 기여하게 되고 그동안 중점 추진해온 건물 에너지효율성 제고사업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 태양열에너지 생산 확대, 기술인력 시장 수요 증대, 태양열에너지 기술산업 발전이란 효과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10/04/313097/)

젊은 음악인 양성계획 발표 (런던)

- 런던시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단원 등 전문 음악인이 10대에게 악기를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 5000명의 젊은 음악인을 배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현재 13개 자치구, 6개 오케스트라, 1개 음악대학이 이 프로그램에 동참함. 시는 이들 기관에 음악교육 기금을 지원함.
- 이들 기관은 앞으로 2년간 10대 5000명에게 악기 연주법을 교육함. 수강생은 런던 최고 공연장에서 최고 음악가와 함께 연주하는 기회도 얻게 됨.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대가 악기 연주를 계속 배우도록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 시는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임.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s-scheme-make-5000-young-musicians)

8. '친환경 운전' 경진대회 개최 (도쿄)

- 도쿄도는 그동안 구·시·읍·면과 연계해 친환경 운전(에코 드라이빙) 교습회나 세미나 등을 실시해옴. 최근 실시한 교습회 사례를 보면 자동차 운전학원과 연계하여 8일에 걸쳐 친환경 운전기술을 교육함. 관공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평균 연비 개선율이 33%로 나타남. 교습생이 당장 실천하고 싶어 하는 친환경 운전방법 1순위는 속도 변환을 적게 하는 운전법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공회전 자제, 부드러운 출발 순임.
- 도는 친환경 운전법을 보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친환경 운전' 경진대회를 2010년 10월 24일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팀을 모집함. 팀은 2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고 참가부문은 전업 운전자(트럭, 버스, 택시 운전기사)와 일반 운전자로 나뉨. 저연비 주행법, 주행시간, 안전 운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팀을 선정한 뒤 시상함.
- 그밖에 전문가가 올바른 운전법을 소개하는 이벤트와 토크쇼도 개최됨. 이 경진대회는 일본 경시청, 일본 자동차공업협회, 도쿄 자동차교습소, 트럭협회, 에너지절약센터, 항공사, 석유회사, 환경미디어 포럼으로부터 후원을 받음.

(www.metro.tokyo.jp/INET/BOSHU/2010/09/22k9r800.htm)

(www2.kankyo.metro.tokyo.jp/jidousya/kotsuryo-taisaku/)

도시계획·주택

9. '가로공간 디자인 매뉴얼' 작성 (뉴욕)

○ 뉴욕市 주택국은 도시공간에서 가로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26%로 높은 점을 고려해 최근 '가로공간 디자인 매뉴얼'을 만들. 건물과 주차공간은 45.5%, 공원과 공공공간은 15.5%, 유휴지는 4.5%를 차지함. 이 매뉴얼은 1970년대 공리주의에 입각한 가로경관에 기반을 둬. 市는 앞으로 이번 매뉴얼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임.

- 市는 지난 40여 년간 시민의 생활방식이나 가치 지향, 도시공간 구조가 변화한 데 반해 가로와 도로공간은 이에 맞게 바꾸지 못해 디자인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번 매뉴얼이 가로공간 디자인의 전체 과정을 효율화하고 비용 절감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함.

· 매뉴얼의 목표는 ① 시민 이동 시 안전을 보장하고, ②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며, ③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살리고, ④ 일상생활과 친숙한 공공공간을 창출하며, ⑤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⑥ 조화롭고 효율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데 있음.

- 市는 앞으로 기존 도시디자인 관행을 갑자기 바꾸기보다는 이 매뉴얼을 활용해 가로공간을 점진적으로 보행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 계획임. 디자인 영역은 철도공간, 가로공간, 가로수, 조명, 가로시설물 등을 포괄하며 규격, 소재, 색상 등에 대한 지침도 제시함.

(www.nyc.gov/html/dot/downloads/pdf/nycdot_streetdesignmanual_quick_ref_design_policy.pdf)

10.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도시계획 안내서 발간 (영국)

○ 영국 건축·건조환경 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다니기 쉬운 거리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 ‘Sight Line’을 발간함. 이 보고서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계획 안내서로 영국 왕립예술학교가 1년간 연구한 결과를 담음. 왕립예술학교는 약시 등 시각장애인 8명이 각자 살고 있는 동네를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를 조사한 뒤 약시인 사람, 흰지팡이 사용자, 맹도견 활용자 등이 소리, 촉감, 기억을 이용해 동네를 안전하게 다니도록 하는 ‘내비게이션 지도’ 작성지침을 만듦.

- 이번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 8명을 성별, 연령,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정해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둬. 면접 및 관찰과 같은 사회과학 조사방법과 함께 조사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따라 동영상을 촬영하고 참가자의 소감도 기록함. 가로 설계 전문가는 다양한 경로에서 수집한 시각장애인의 실질 이동경로와 이동방법을 토대로 시각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관찰 자치구 담당자와 함께 연구해 내비게이션 지도를 작성함.

· 그밖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가 도로공사 안내판, 도로시설에 배치하는 시각장애인용 음성·점자 안내문 등을 설계하는데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도 제시함.

(www.cabe.org.uk/publications/sight-line)

(www.hhc.rca.ac.uk/2988-3001/all/1/Sight-Line.aspx)

11. 공공공간 개선 프로그램 ‘위대한 야외공간’ 추진 (런던)

○ 런던시는 ‘위대한 야외공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런던 전역을 대상으로 20개 공공공간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해 버려진 공간을 깨끗하고, 푸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킴. 이 프로그램은 런던을 세계 최고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86개 공공공간을 개선하고 가로수 1만 그루를 심을 계획임.

- 최근 프로젝트를 완료한 레드브리지의 갠츠 힐 인터체인지의 경우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 운전자 모두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변모함. 교통 안내표지판, 보행자와 자전거 횡단보도를 설치해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 보도와 차도를 모두 새롭게 포장하며 주변에는 나무를 심음.
- 시민들이 우수 공원으로 선정한 ‘Fairlop Waters Country Park’도 공공공간 개선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임. 이전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으나 보행로와 횡단보도를 설치한 이후 젊은이와 어린이, 암벽 등반가가 자주 찾는 공원으로 바뀜.
- 옥스퍼드 거리에 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외곽지역인 오픈턴 상점가 보도를 서로 연결하고 확충하여 주민이 동네 상가를 자주 이용하도록 유도함. 브릭스톤 중심부에 있는 광장에는 이민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이민자를 형상화한 조각상을 설치하고 가로수를 심음.

(www.london.gov.uk/blog/transforming-londons-great-outdoors)

12. 20년 장기발전계획 'Big City Plan' 수립 (영국 버밍엄市)

- 영국 버밍엄市는 향후 20년간 도심부에 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 'Big City Plan'을 발표함. 이 계획은 800헥타르에 달하는 도심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장기비전과 세부 정책내용을 포괄함.



- 市는 도심부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준비해 왔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논의하여 결과를 도출함. 이번 장기발전 계획 수립으로 시민, 투자자, 기업가에게 지역 경제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계획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쾌적한 공공공간을 창출하며, 보행자가 걷고 싶은 거리를 도심에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음. 도심부 경제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건축면적 150만 평방미터 이상 규모의 업무용 빌딩, 상점, 레저·문화시설 신설, ② 신규 일자리 5만 개 창출, ③ 5개 핵심지역 재

개발, ④ 6만 5000평방미터 규모의 공공공간 조성과 2만 8000 평방미터 규모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신설, ⑤ 주택 5000여 세대 공급, ⑥ 구(舊)도심 전통지구 지원과 가치 및 역할 재창조 등임.

(<http://birminghamnewsroom.com/?p=13070>)

13. 민간이 소유한 역사 건축물 보수공사 지원 (도쿄)

○ 도쿄都는 1999년부터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선정해 보수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함. 都는 2010년 10월 5일 현재 81건을 역사 건축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면 대상에서 제외함.

- 都는 매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소유주에게 건축물 보수를 위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함. 지원사업은 2020년까지 시행되며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한해 지원함.

· 2010년에는 1921년에 지은 다이쇼시대 벽돌구조물인 와세다 봉사원 스코트 홀, 1929년에 지은 일본 최초 공회당인 시정회관 등 총 4건이 선정됨. 지원금은 건당 1000만 엔(약 1억 3700만 원) 한도로 공사비의 50%임.

- 도시경관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도쿄의 역사 건축물 사진전도 2010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함. 전시 사진은 ① 都가 선정한 역사 건축물, ② 현존하는 역사 건축물, ③ 지난 30년간 소실된 역사 건축물, ④ 도내 23구의 근대 건축물 사진임.

(www.metro.tokyo.jp/INET/EVENT/2010/10/21ka7100.htm)